

## 강물

천상병

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그 까닭은  
언덕에 서서  
내가  
온종일 울었다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.

밤새  
언덕에 서서  
해바라기처럼 그리움에 피던  
그 까닭만은 아니다.

언덕에 서서  
내가  
짐승처럼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 까닭은  
강물이 모두 바다로만 흐르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.

오후

천상병

그날을 위하여  
오후는  
아무 소리도 없이....

귀를 기울이면  
그래도  
나는 나의 어머니를 부르며  
울고 있다.

멀리 가까이  
떠도는 하늘에  
슬픔은 갈매기처럼  
날아가곤 날아가곤 한다.

그것은  
그 어느날의 일이었던다.  
그 어느날의 일이었던다.

그리하여  
고요한 오후는  
물과 같이 나에게로 와서  
나를 울리는 것이다.

귀를 기울이면  
어머니를 부르는  
소리가 들려온다.

## 한낮의 별빛

--새

천상병

돌담 가까이  
창가에 흰 빨래들  
지붕 가까이  
애기처럼 고이 잠든  
한낮의 별빛을 너는 보느냐.....

슬픔 옆에서  
지겨운 기다림  
사랑의 몸짓 옆에서  
멤도는 저 세상 같은  
한낮의 별빛을 너는 보느냐.....

물결 위에서  
바윗덩이 위에서  
사막 위에서  
극으로 달리는  
한낮의 별빛을 너는 보느냐.....

새는  
온갖 한낮의 별빛계곡을 횡단하면서  
울고 있다.

## 갈매기

천상병

그대로의 그리움이  
갈매기로 하여금  
구름이 되게 하였다.

기꺼운 듯  
푸른 바다의 이름으로  
흰 날개를 하늘에 물어보내어

이제 파도도  
빛나는 가슴도  
구름을 따라 먼 나라로 흘렀다.

그리하여 몇 번이고  
몇 번이고  
날아오르는 자랑이었다.

아름다운 마음이었다.

새

천상병

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 
내 영혼의 빈터에  
새날이 와 새가 울고 꽃잎 필 때는,  
내가 죽는 날,  
그 다음날.

산다는 것과  
아름다운 것과  
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 
한창인 때에  
나는 도랑과 나뭇가지에 앉은  
한 마리 새.

정감에 가득찬 계절  
슬픔과 기쁨의 주일(週日)  
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 
새여 너는  
낡은 목청을 뽑아라.

살아서  
좋은 일도 있었다고  
나쁜 일도 있었다고  
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.